

\*

김우성(부산외국어대학교)\*\*

I. 가  
 II.  
 III.  
 IV.  
 V.

## I. 들어가는 말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과 함께 이식된 스페인어는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이후에도 이들 간의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복 초기 중남미에 들어온 스페인어는 정복자들의 출신지역,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상황, 식민지 본국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식민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각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 현재에도 이들 국가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보면 그들이 독립 후에 겪은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일반화시켜 얘기하는 ‘중남미 스페인어’는 이 지역에

\* 이 논문은 2002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Uh-Sung K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nguaje e identidad nacional de los argentinos”.

서 쓰이는 스페인어를 가름하는 명칭 이외에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을 구분하는 차이만큼이나 스페인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 스페인어 혹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처럼 각 지역의 화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이 구체적인 실체를 갖는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쉽게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를 구분할 수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스페인어 역시 서로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어서 쉽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식민지 시대에는 지방색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기능을 해왔으나,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단일규범 즉, 본국의 규범과 다르기 때문에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정확한 스페인어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중남미가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식민 지배를 겪었던 모든 국가에서처럼, 중남미에서도 정치적 독립과 함께 문화적인 독자성(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를 위한 노력 중의 중요한 부분이 언어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지역에서는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페인어가 국가의 공용어로 이미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식민통치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언어를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표준어로 기능해왔던 본국의 언어규범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지역적 방언 정도로 취급되었던 자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멕시코나 페루와 같이 식민지 기간 동안 스페인의 문화적 전통이 단단히 뿌리를 내린 국가들에서는 별다른 논쟁을 유발하지 않고 자국의 스페인어를 규범으로 채택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미미했던 나라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독립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 정치적 독립과 함께 언어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그룹과 이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만의 독특한 언어 인식이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어느 여타 국가보다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언어문제는 무엇이고, 언어와 관련하여 각 시대별로 아르헨티나의 식자층이 가졌던 인식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결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정치적 독립과 언어문제

19세기 초엽의 중남미는 스페인 식민체제의 단절과 이로 인한 여러 독립국가들의 출현으로 특징된다. 이러한 해방의 분위기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이들 사회의 지식층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긴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자 이와 함께 문화적인 독립의 요구가 강렬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3세기에 걸쳐 유지되어온 스페인과의 문화적 유대감이 정치적인 그것처럼 하루아침에 단절될 수는 없었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서 스페인이 남긴 다른 문화적 전통들과 분리하여, 스페인과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간의 정신적인 유대를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단절을 막고 계속해서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 본국인 스페인의 표준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독립초기에 스페인어의 단일성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대표적인 지식인은 중남미 언어학의 시조로 추앙 받는 안드레스 베요(Andrés Bello)이다. 그는 중남미의 독립을 새로운 것의 탄생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붕괴 때와 유사한 파괴 행위로 간주하고, 스페인이 물려준 스페인어를 가능한 한 순수한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스페인어의 분화

가능성을 막아보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전주의 작가들과 18, 19세기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 토대를 둔 스페인어 단일규범 제정에 강한 집착을 갖게 된다. 그는 스페인어가 스페인이 물려준 값진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당시 중남미 국가의 분열과 중남미 지식인들에 대한 프랑스 영향의 증대로 인한 프랑스 어휘의 많은 유입을 지켜보면서 중남미에서 언어분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모든 중남미 국가들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스페인어에서 찾고 단일규범의 도입을 통한 분화과정의 억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고자 그는 중남미인을 위한 스페인어 문법(*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을 펴내게 된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나는 이 책을 스페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나의 형제들인 중남미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Bello, 1984: 32)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책의 제목이나 서문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그는 이 문법서를 통해 중남미 스페인어의 규범을 만들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가 중남미 사람들을 위해 문법서를 쓴 것은 이 지역에서 스페인어의 분화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었고, 이 책에서 의도했던 바는 중남미 사람들이 분열을 딛고 언어의 통일성을 위해 그가 주장한 단일규범을 따랐으면 하는 것이었다(김우성, 1997).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독립 초기에는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인 후안 바렐라(Juan Varela)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스페인 전통에 기반을 둔 규범, 사상 그리고 가치 등을 옹호하면서, 언어에서도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를 순수한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당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스페인어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비판에서 엿볼 수 있다.

아주 뿌리 깊이 박힌 습관들이 있다. 일반 좌담이나 심각한 토론, 문어, 법원에서조차 일상적으로 언어가 아주 잘못 사용되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발음을 지금 고치도록 하자.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곳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단어의 적절한 사용, 문장의 정확성에서 광범위하게 언어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다.(Fontanella de Weinberg, 1988: 75에서 재인용)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스페인 식민지 전통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열망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1830년에 이르면 보다 급진적인 언어 독립의 요구로 바뀐다. 이러한 요구는 후안 마리아 구띠에레스(Juan María Gutiérrez), 후안 바우띠스따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 에스떼반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ía) 등으로 대표되는 37세대의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 표출된다. 이들은 우선 과거에 대한 단죄로부터 출발하여, 국가 독립은 당시까지 지배적이었던 식민지 시대의 가치나 전통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고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페인 유산에 대한 청산을 시작한다. 또한 독립 후 처음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할 새로운 가치체계의 확립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로써 정치적 독립이라는 이상에 이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요소로서 문화적 독립이라는 이상이 더해지게 된다. 이들의 스페인 식민지 전통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언어가 낭만주의자들의 검토대상이 된다. 이들은 언어가 민족정신을 표현하고 형성시킨다는 조안 헤더(Johan Herder)(Fishman, 1972)나 훔볼트(Humboldt)(Marcellesi & Gardin, 1978)의 영향을 받아 언어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언어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스페인어를 이미 정치적 관계를 단절한 스페인과 동일시하여 이를 부정한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어는 스페인이라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결점과 결함이 있으므로 식민지 시대의 유물인 스페인어를 청산하고 스페인어와 다른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알베르디(1955)는 낭만주의자들 중에서

1) 언어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언어민족주의적 개념에서는 자신들의 언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르헨티나의 37세대의 언어 민족주의에서는 당시 자신들이 물려받은 언어인 스페인어를 본국인 스페인과 동일시하여 이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계승해야 할 대상이 아닌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특징이다.

도 가장 극단적인 입장을 견지해, 스페인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를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법률이나 관습이 아르헨티나의 것이 아니고 스페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언어적 독립이 없이 정치적 독립만 가지고는 국가의 독립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아르헨티나 낭만주의자들은 언어에 대한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독립 후에도 계속해서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따르는 것은 독립의 이상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언어주권에 대해 알베르디(1955)는 국민이 법률을 제정하듯이 언어를 제정하며 이런 점에서 독립, 주권국가라 한다면 정치에서 법률이 다른 국가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나오듯이, 언어 역시 다른 나라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37세대의 주류를 이루는 것인데 스페인 문화에 대해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의 문화에 비해 낙후되고 새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대표하는 언어 또한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이라 여겨,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페인어와 단절하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sup> 그러나 모든 낭만주의 작가들이 이러한 급진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에체베리아는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 중남미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언어이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Echeverría, 1958). 이는 그가 다른 낭만주의 자들과는 달리 언어의 단절을 주장하지 않고 스페인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다양한 규범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sup>

2) 구띠에레스는 이에 대해, “우리는 아직 언어라는 강력하고 긴밀한 고리를 통해 스페인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고리는 우리가 유럽 선진국들과 지식을 교류함에 따라 점차 느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외국어에 친숙해져야 하며 이들 언어 속에 들어 있는 좋고, 흥미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상시적인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Fontanella de Weinberg, 1988: 76에서 재인용)라고 말한다.

언어에 대한 주권재민, 언어적 독립과 같은 주장은 37세대들과 동 시대에 칠레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사르미엔또(Sarmiento)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그는 철저한 반 스페인적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중남미 의 언어적 독립의 주창자로, 당시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의 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별도의 문어체 스페인어를 만들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단어를 만들고, 일상어에서 온 형태나 표현을 받아들이고 토착어에서 언어재료를 차용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민주주의 신념이 강하고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그는 한 언 어권 내의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교양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결정 권이 있다는 베요의 주장을 배격하고, 이러한 결정은 다수로 이루어 진 합의체가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로 합의한 것을 추진하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언어를 사회와 같이 역사적 사건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 회적 실체로 간주해서, 상황의 변화로 해서 언어의 변화가 필연적일 경우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소수의 의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언어 순수주의자들이 언어의 변화를 막거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도록 하려는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라 보았 다. 따라서 당시 중남미의 사회·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스페 인의 언어규범을 중남미에서 유지하려 했던 언어 순수론자들의 입장 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어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스페인 한림원에 대해서도 사르미엔 또는 이미 오래 전에 쇠퇴한 스페인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로 간주하 여, 중남미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를 막고 단일규범을 내세우는 한림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 다. 또한 신조어의 무분별한 도입은 단일규범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던 Bello와는 달리, 그는 스페인어 초창기부터 항 상 그래왔듯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

3) 이러한 에체베리아의 생각은 현재 스페인어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복수규 범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왔다. 그리고 문화면에서 스페인이 옛 식민지보다 나을 입장이 되지 못하므로 중남미 국가들은 유럽의 선진국으로부터 그들의 문화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표현하는 어휘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언어적 독립에 대한 생각은 1848년에 그가 제안한 철자 개혁안인 중남미 철자법 연구 (*Memoria sobre ortografía americana*)에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sup>4)</sup> 그가 제안한 철자는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발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이 개혁안이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의 언어 연구가 스페인어의 순수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비해 이것은 중남미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스페인어 언어 정책에 스페인의 표준규범이 아닌 중남미의 언어현실을 반영시키라는 최초의 요구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르미엔또는 이 개혁안에서 중남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스페인에서만 사용되는 발음을 나타내는 철자인 ‘z’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seseo’가 잘못 사용된 오류가 아니라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결국 언어독립을 주장한 사르미엔또와 37세대의 낭만주의 작가들은 스페인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를 표현하는 스페인 스페인어를 거부하고 중남미 상황에 맞게 변형되고 유럽 선진국의 언어의 영향을 받아 풍부해진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생각하고 있었다.

187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적인 상황이 안정을 찾게되고 제도적인 정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낭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적인 독립의 열기도 점차 식어갔다. 이러한 시점에 스페인 한림원은 중남미 지부 결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시 아르헨티나에서 언어주권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해 낭만주의자들은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이룩한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언어규범에 있어서 스페인 한림원의 권위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대해 알

4) 미국의 경우에도 독립 직후 언어를 통한 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철자법 개혁이 제안되었다(Simpson, 1986).

베르디는 “이는 중남미에 다시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유지시키겠다는 책략으로 이를 기화로 스페인 한림원이 중남미에 들어와 외교나 무력을 통해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다른 아닌 반혁명이고 중남미에 스페인의 문학적 주권을 복원시키려는 것이다”(Blanco, 1991: 35에서 재인용)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낭만주의자들은 초기에 가졌던 언어 독립과 같은 극단적인 언어 민족주의적 입장을 누그러뜨린다. 특히, 사르미엔또와 알베르디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중남미의 언어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스페인과 중남미가 똑같이 스페인어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공용어로서의 스페인어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언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스페인어를 다른 언어와 구별시켜주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아르헨티나 국어로 초창기에 주장했던 스페인어와 다른 새로운 언어가 아닌 아르헨티나 상황에 맞게 변화된 스페인어를 생각했다. 또한 이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유럽문화, 특히 프랑스 문화 및 외국어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언어와 국가를 동일시했음에도 언어 순수주의 뜻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외국어와 접촉을 통해 스페인어가 풍부해진다고 생각했다.

### III. 유럽 이민자들의 유입과 언어 민족주의

낭만주의자들의 이러한 유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보다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유럽인들의 유입으로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1880년부터 아르헨티나에 대규모의 유럽 이민자들의 유입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문화적 수준이 낮고 대부분이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어서 당시 이들의 유입으로 많은 발전을 바랐던 지배계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토지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라플라타강(Río de la Plata) 유역과 같은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 인구 구성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인구구성 분포를 보인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사회의 프랑스화와 일부 지도층의 세계주의적 경향(cosmopolitanismo)이 심화되고,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사회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언어에서도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는 스페인어 외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다중 언어상황이 생겨난다.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언어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구조사가 부재한 까닭에 어떤 언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인구조사 대상자의 국적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사용한 모국어를 개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민자 중 스페인어와 다른 언어를(이태리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등) 구사하는 사람들이 시 전체 인구의 52.6%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복잡한 언어상황을 잘 말해준다.

아르헨티나	205,334	47.4%
이태리	139,166	32.1%
스페인	39,562	9.1%
프랑스	20,031	4.6%
기타	29,882	6.9%
총 외국인수	228,641	52.6%

(Fontanella de Weinberg, 1982: 79)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 이민자들 중 이태리 출신들이 가장 많았고 전체 인구의 32.1%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태리어의 어휘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에 많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sup>5)</sup> 또한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의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이들이 스페인어를 비교적 쉽게 배워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두 언어가 혼합된 중간언어 격인 꼬폴리체(cocoliche)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형태는 이민 2세대에 가면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커다란 사회적 변혁으로 인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대도시 특유의 범죄적인 분위기가 생겨나는데, 언어 면에서도 범죄자들의 언어인 룬파르도(lunfardo)가 형성되어 후에 많은 부분이 스페인어의 일상어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바로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가지 상반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1910년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사회를 지배한 이념인 지배층의 민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의 중간 계층의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이 두 이념간의 차이는 전자가 이민자의 유입으로 초래된 사회 변화에 맞서 보수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표방하면서 스페인 본국과의 관계 및 전통의 재평가를 통해 스페인적인 것을 복원하자는 주장을 펴는데 비해, 후자는 전통과 새로운 것, 아르헨티나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중남미적인 것과 스페인적인 것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아르헨티나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arbero y Devoto, 1983).

언어적인 면에서도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전자의 경우에는 친 스페인적인 언어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띠어 언어를 국가를 상징하는 신성한 요소로 간주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국어로 스페인의 언어규범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아르헨티나인의 뿌리와 새로이 태동된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상실돼 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식민

5) 그러나 당시 이태리 이민자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당시 이탈리아어의 사용범위의 한계로 인해 이탈리아어에서 들어온 어휘는 음식(peta, ricota, peseto... 등), 가족(pibe, nona... 등), 일상의 용어(chau, laburo, lungo... 등)에 집중되었다.(Fontanella de Weinberg, 1988: 80)

지 시대에 사용되었던 스페인 언어규범이 언어의 순수한 형태를 보존한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상황에 의해 변화된 스페인어는 타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언어 변화는 곧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여겨 언어 순수주의를 고집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언어가 타락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체성의 해체 신호로 받아들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페인의 언어규범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시기의 상황을 칼 솔베르그(Carl Soberg)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규모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었던 시기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용된 스페인어가 겪었던 급속한 변화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국가적 정체성의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Soberg, 1970: 139)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에 이전의 37세대가 주장한 언어민족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적인 언어민족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이는 칼릭스토 오유엘라(Calixto Oyuela), 에르네스토 께사다(Ernesto Quesada), 알베르토 델 솔라르(Alberto del Solar), 라파엘 오블리가도(Rafael Obligado) 등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들은 당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연스런 언어변화를 민족성의 퇴보로 간주하여, 스페인어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정체성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를 독립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스페인 전통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간주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친스페인적인 경향을 띠었고, 아르헨티나의 독자성을 부정했다. 이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문화, 정치 영역에서 나타난 정신, 전통, 스페인 뿌리라는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하는 이념적 민족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Blanco, 1991). 이들은 이전의 낭만주의자들이 주장한 언어 민족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스페인어를 민족혼이나 국민정신을 나타내는 표상,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으로 간주하여 민족이나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언어를 순수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보존할 목적으로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과정을 억제하려는 언어 순수주의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 새로운 언어 민족주의는 언어 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37세대 낭만주의자들이 제기한 언어 독립에 대한 주장에 동조했다. 이들도 언어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스페인의 언어규범의 유지를 주장한 친 스페인 언어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스페인어의 아르헨티나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스페인어와 다른 아르헨티나 고유의 언어를 만들려고 했다. 1920년대 말에 가면 이들은 스페인의 어휘와 아르헨티나의 어휘 차이의 분석에 토대를 둔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와 다른 아르헨티나 고유의 언어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Rossi, 1928)<sup>6)</sup>. 이들은 언어독립을 주장한 낭만주의자들처럼 언어가 각 민족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통해 아르헨티나에 형성된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상인 언어 또한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스페인 규범의 유지를 주장하는 전통주의자들이나 아르헨티나 독자적 언어를 주장하는 언어 독립주의자들 공히 언어문제를 통한 아르헨티나의 정체성 추구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을 복원,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스페인 규범의 순수성을 보존할 것을 주장했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스페인어의 아르헨티나적인 실현, 다시 말하면, 외래어와의 접촉, 아르헨티나의 풍속과 관습에 의해 변형된 -그들 생각으로는 다른 언어인-스페인어의 한 변이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들은 서로 상반된 시각에서 해석한다. 언어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전통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된 외래어와의 접촉이 언어변화를 유발한 제 일차적인 요인으로 보고, 그로 인해

6) 이들이 말하는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언어란 일반 대중의 스페인어를 근간으로 이태리어, 불어, 영어 등에서 온 어휘들이 혼재한 언어를 말한다.

언어가 타락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언어 독립주의자들은 외래어와의 접촉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를 독특하게 변화시킨 근본적 원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IV. 아르헨티나 표준규범의 정립

1920년대를 기점으로 아르헨티나에는 앞에서 본 언어 순수주의와 언어적 독립 주장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스페인어 내에 지역적인 색깔을 갖는 변이형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복수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보르헤스(Borges)는 복수규범의 관점에서 언어 순수주의와 언어적 독립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한다.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영향이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에 대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 스페인어가 하층민들의 말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완결성과 그것으로부터의 이탈은 불경스럽고 무용하다고 믿는 순수주의자 혹은 스페인 숭배주의자들의 영향이다(Borges, 1994: 136).

이러한 주장은 보르헤스 이외에도 페드로 엔리케스 우레냐(Pedro Henríquez Ureña), 알베르토 Zum 펠데(Alberto Zum Felde), 에르네스토 사빠또(Ernesto Sábato) 등에 의해 제기되는데 이들은 아르헨티나 언어의 문제를 중남미 문화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아르헨티나의 정체성과 아르헨티나 문학, 나아가서 중남미 문학의 독창성 추구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언어의 순수주의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물려받은 스페인어 내에서 중남미 각 국가의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리카르도 로하스(Ricardo Rojas)는 이것을 아르헨티나 문학에서의 언어문제와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아르헨티나 문학은 아르헨티나어로 쓰여져 있지 않다.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언어로 책을 펴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식민자들이 중남미에 가져온 스페인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다(Rojas, 1924: 45).

그는 이어서 중남미에서 언어에 대해서 갖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다. 하나는 국민문학이 있기 위해서는 국어가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어가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면 이들은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마지막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이 언어를 물려준 스페인의 문학적 식민지이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스페인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공용어인 경우, 각 국가 문학의 새로운 내용, 감수성의 지역적 색깔, 변화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휘, 문장구성, 의미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모습을 갖게될 언어 내의 다양한 복수규범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르헤스 역시 스페인어 규범의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스페인의 스페인어와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 사이에 어떠한 극복하지 못할 거리가 존재하는가? 서로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서로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 또한 언어의 완전한 소통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아주 은근한 것이고 조국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선명한 것이다(Rojas, 1924: 146).

이와 관련하여, 슐 펠데는 중남미 문화의 문제에서 중남미와 스페인의 서로 다른 현실을 토대로 스페인 스페인어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가 동일한 것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남미 각 국의 역사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형되고 풍부해진 이 지역 스페인어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우리가 물려받은 언어는 스페인어이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될 수가

없다. 또한 그렇게 될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가 스페인의 스페인어와 같으라는 법도 없다. 아니 같을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스페인사람들과 같지도 않으며 같고 싶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같을 수가 없다(Zum Felde, 1943: 229).

또한 사바또도 중남미 및 아르헨티나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언어가 인간의 삶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굴곡이 심한 변화를 받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르헨티나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voseo<sup>7)</sup>와 같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의 차별적인 특징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voseo는 이미 우리 국민의 피와 살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소설이나 연극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작가들은 결코 자신이 속한 상황의 심층적인 진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고통받고,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울부짖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불행과 희망이 섞여있는 그런 언어이다. 그것은 어린 시절 우리가 젖을 먹던 언어이다. 또한 우리가 했던 놀이들, 우리 주위에 있었던 새들과 개들, 우리가 꾸었던 꿈들 그리고 악몽까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언어이다(Sábato, 1968: 163).

스페인어 내에서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언어규범을 주장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앞에서 본 언어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슐 펠데(1943)에 따르면 언어 순수주의는 중남미의 진정한 시각에 반하는 식민지 시대의 보수적인 조바심에 지나지 않고, 반대로 언어를 천박하게 만들어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려는 노력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인위적인 모든 것은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 voseo란 현재 스페인어권에서 2인칭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는 tú 대신에 vos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스페인어에는 각국의 교양계층의 말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표준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언어의 순수성을 고집하거나 언어적 독립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입장과는 다른, 언어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를 하층 계급의 말과 교양계층의 말로 구분하여 후자를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표준규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언어 인식은 현재까지도 일반 언중들에게 영향을 미쳐 최근에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인의 언어태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까를로스 솔레(Solé, 1992)에 따르면, 1982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양계층을 상대로 실시한 언어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스페인 한림원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문화 및 전통, 언어, 종교를 들고 있으며 이 중 문화 및 전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51%), 다음으로 언어(44%) 그리고 종교라고 응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이는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르헨티나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교양계층의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요인이 나타난다. 첫째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좋은 스페인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페인 한림원의 규범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이를 아르헨티나의 표준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둘째 자신들의 스페인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미와 어휘를 들고 있고, 셋째 자신들의 언어규범이 스페인의 한림원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한림원에 의해 국민들의 언어현실에 맞춰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zeísmo*<sup>8)</sup>나 *voseo*의 사용과 관

련해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다 더 차별적인 언어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 V. 맺는 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역사적 단계마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곧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인 언어문제로 이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로 상반되는 언어 민족주의적인 이념이 생겨났다. 하나는 스페인 규범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언어적 독립을 주장한 낭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과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된 이후에 형성된 사회 중간세력의 언어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이들은 보수적인 언어 순수주의자들에 맞서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언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어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공통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움직이게 한 언어 인식에는 차이가 있어, 전자는 대규모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파생된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스페인적인 전통의 복원을 통해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따라서 스페인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스페인 전통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유지를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언어적 독립을 주장한 후자는 새로이 형성된 사회에서는 스페인어와는 다른 자신들 특유의 언어규범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 언어적 독자성을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전의 스페인 규범의 순수성의 주장이나 언어적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라앉긴 했으나, 새롭게 탄생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스페

8) zeísmo란 스페인어 철자 y나 ll를 스페인어권의 일반적인 발음인 [y]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z]처럼 하는 음성현상을 말한다.

언어와 다른 별개의 언어가 아닌 아르헨티나적인 특성이 배어있는 스페인어를 표준규범으로 하는 독자적인 언어규범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 Abstract

En la Argentina, la búsqueda de la identidad nacional es un rasgo que ha caracterizado a la mayoría de las etapas de la historia. Esta búsqueda de una definición de su identidad siempre se ha entroncado con la cuestión idiomática, ya que la lengua es un marcador relevante de identidad.

En los momentos inmediatos a la emancipación, la posición de América Latina en materia idiomática es atenerse a la norma peninsular con una actitud casticista, lo cual está en conflicto con su ideal político emancipador.

Pero la generación romántica del 37, imbuida por las primicias del nacionalismo lingüístico, realiza crítica y revaloración del pasado inmediato en su búsqueda de lograr la identidad nacional. La lengua es identificada entonces con la nación española, con la que se ha roto el vínculo político de pertenencia y por ello es rechazada. Algunos románticos, adhriendo a los principios de soberanía popular y emancipación lingüística, intenta crear una lengua nacional distinta del español.

Frente a los procesos de cambio generados por el aluvión inmigratorio que empiezan desde fines del siglo XIX, surgen dos corrientes opuestas de nacionalismo: nacionalismo hispanista y nacionalismo del grupo criollo-inmigratorio. En lo que se refiere a la materia lingüística, ambas corrientes muestran las diferencias en la variedad lingüística a la que dirigen sus valoraciones positivas que es, en el primer caso, la norma

peninsular y en el otro, la variedad nacional. Estos dos corrientes nacionalistas comparten la búsqueda de la identidad nacional a través de la lengua, realizando sobrevaloración del idioma como marcador de identidad. Sin embargo, mueve al primero el móvil de la revitalización de los valores y tradiciones hispánicos; por ello la conservación de la lengua implica la conservación de la identidad nacional tradicional de raíces hispánicas. En el caso del nacionalismo criollo-inmigratorio, la variedad lingüística propia distinta de la norma española, los conduce a proclamar la independencia lingüística, la ruptura de la unidad idiomática como modo de afirmar el nuevo identidad nacional nacido en las nuevas clases criollo-inmigratorias.

A partir de 1920, empiezan a aparecer algunas manifestaciones de una posición eclética frente al problema lingüístico, y postulan la existencia de un matiz regional, de una modalidad argentina dentro de la lengua española, reconociendo la existencia de rasgos peculiares y propios del español en la Argentina.

Key Words: Español, Nacionalismo Lingüístico, Emancipación Lingüística, Identidad, Norma, Argentina, Romanticismo / 스페인어, 언어 민  
족주의, 언어독립, 정체성, 언어규범, 아르헨티나, 낭만주의

논문투고일자: 2003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11월 14일

- 김우성(1997),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과 중남미 스페인어: 새로운 언어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서어서문연구, No. 11, pp. 3-18.
- Alberdi, Juan Bautista(1955), *Fragmento Preliminar al Estudio del Derecho*, Buenos Aires: Hachette.
- Barbero, María Inés y Fernando Devoto(1983), *Los nacionalistas*,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 Bello, Andrés(1984),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Colección EDAF Universitaria.
- Blanco de Madero, Mercedes Isabel(1991), *Lenguaje e identidad. Actitudes lingüísticas en la Argentina. 1800-1960*, Bahía Blanca: Gabinete de Estudios Lingüísticos, Departamento de Humanidades, Universidad Nacional de Bahía Blanca.
- Borges, Jorge Luis(1994), *El idioma de los argentinos*, Buenos Aires: Seix Barral.
- Echeverría, Esteban(1958), *Dogma socialista de la Asociación de Mayo*, Buenos Aires: Perrot.
- Fishman, Joshua(1972), *Language and Nationalism*, Massachusetts: Newbury House.
- Fontanella de Weinberg, María Beatriz(1988), “Cuatrocientos años del español bonarense. Un esbozo de su evolución histórica”, *Actas del V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de Lingüística y Filología de la América Latina*,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p. 61-94.
- Guitarte, Guillermo L.(1991), “Del español de España al español de veinte naciones: La integración de América al concepto de lengua española”, en *El español de América. Actas del III Congreso Internacional del Español de América*, Valladolid:

- Junta de Castilla y León, pp. 65-86.
- Marcellesi, Jean y B. Gardin(1979), *Intrducción a la sociolingüística*, Madrid: Gredos.
- Rojas, Ricardo(1924), *Eurindia*, Buenos Aires: Librería de La Facultad.
- Rosenblat, Ángel(1984), *Estudios dedicados a la Argentina*, Caracas: Monte Ávila Latinoamericana C. A.
- Rossi, Vicente(1928), *Idioma nacional rioplatense*, Río de la Plata: Imprenta y Encuadernación Popular.
- Sábato, Ernesto(1968), *Itinerario*, Buenos Aires: Sur.
- Sarmiento Domingo F.(1889-1909), *Obras Completas*, Santiago de Chile /Buenos Aires/París: Imprenta de Berlín Sarmiento.
- Simpson, David(1986), *The politics of American Englis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lberg, Carl(1970), *Immigration and nationalism, Argentina and Chile(1890-1914)*, Austin: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Texas Press.
- Solé, Carlos A.(1992), “Actitudes lingüísticas del bonarense culto”, en Elizabeth Luna Trail(ed.), *Scripta Philologica in honorem Juan M. Lope Blanch*,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p. 773-822.
- Zea, Leopoldo(1986), *América Latina en sus ideas*, México: Siglo XXI.
- Zum Felde, Alberto(1943), *El problema de la cultura americana*, Buenos Aires: Lautaro.